

20세기 거장들의 지적 여정

꾸리에 대담 《21세기를 여는 상상력의 창조자들》

각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20세기 거장들의 대담을 실은 《21세기를 여는 상상력의 창조자들》(이동욱 옮김, 여성신문사)이 출간됐다. 이 책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서 발간하는 《유네스코 꾸리에》(한국어판 《세계로 열린 창》)에 실렸던 문학과 예술, 사상과 과학의 각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들과의 대담을 옮겨 실은 것으로 31인이 살아온 민족적 문화적 삶의 경험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1부 '문학 예술' 분야에는 그리스의 영화배우이자 정치가인 메르쿠리에서부터 체코의 대통령이자 작가인 바츨라프 하벨,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그리고 한국의 정명훈에 이르기까지 17명과의 지적 대화를 담았다. 2부 '사상 과학' 분야에서는 프랑스의 민족학자인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미국의 역사학자인 대니얼 부어스틴, 이탈리아의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와 인도의 물리학자 반다나 시바 등 세계적인 석학 14인의 진지한 육성을 들을 수 있다.

이 책에 실린 몇몇 인물들의 대담내용을 간추려 소개함으로써 20세기를 움직이고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여정을 전망한 지적 탐구의 행렬을 따라가 본다.

멜리나 메르쿠리(연극·영화배우, 정치가·그리스)

“내가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쯤 무대와 스크린의 퇴물이 돼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참혹한 일이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과거시제로 이야기하지 않아서 몹시 행복하다. 그들에게 나는 여전히 ‘멜리나’이다. 매우 상심스러웠던 시기에 나는 그들의 삶의 욕망을 표현했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고 지금도 충심으로 사랑하는 까닭에.”

바츨라프 하벨(작가, 정치가·체코)

“21세기의 전야를 맞이하여,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리고 세계 도처의 사람들이 국적 및 정치체제에 상관없이 만장일치로 지지해야 할 가장 귀중한 소유물은 일련의 인간적 특성, 곧 인류의 기본적 가치들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겸허이다. 히틀러주의나 스탈린주의 또는 폴 포트의 월권과 같이 20세기말에 우리가 겪은 많은 잔혹한 사건들은, 집단 및 개인의, 광신자 및 비광신자의, 몽상가의, 교조주의자의, 그리고 공상적 이상주의자의 허영심과 교만을 보여준다.…현실이 그들의 이론에 들어

맞지 않을 때 그들은 이론을 강요하며 이것은 곧장 수용소로, 대량학살로 끔찍한 전쟁으로 우리를 이끈다.…자유 존엄·정의의 의미를 잊지 말도록 하자. 그리고 보다 겸손해지도록 하자.”

정명훈(음악가·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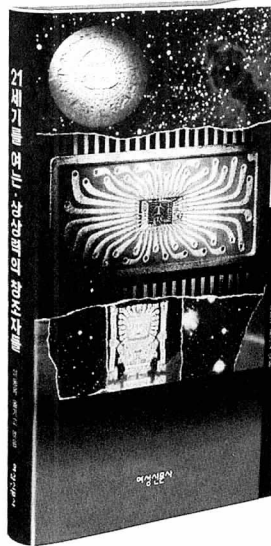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고전음악에 젖어들었다. 내게 있어 그것은 하나의 전문분야 이기에 앞서 자연언어였다. 나는 피아노말고도 바이올린과 첼로드럼 또한 연주했다. 고전음악은 참으로 보편적이다. 그 어떤 형태의 전통음악에 비하면 그것은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이해되며 공유되고 있다. 내게 있어 대체로 전통음악은 가장 진부한 유형의 서구 민속과도 같다. 그것은 변화의 문제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충분한 기간—예컨대 5세기—에 걸친 이 두 양식의 음악을 비교해본다면 우리의 전통음악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키틀로스 푸엔테스(작가·멕시코)

“언제나 나의 목적은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신화들을 현대 멕시코의 현실들과 대면케 하는 것이었다. 과거는 살아있다. 그것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멕시코의 과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멕시코를 이해할 수 없다. 틀림없이 이것은 다른 나라들에도 적용된다. 토착문화가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아르헨티나같은 나라들은 신화의 부재로부터 신화를 만들어낼 수단을 찾아냈다. 이 영역에서는 변증법적이고도 개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 과거의 공백을 채워넣어야 함은 분명하다. 우리는 그 둘, 다시 말해 이야기되지 못하고 동화되지 못하고 전수되지 못한 역사의 그 벌어진 틈을 메우지 않으면 안된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사람들은 종종 유토피아의 꿈으로써 이 간극을 채우려고 애썼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현재와 미래를 보다 낮게 다루기 위해 과거를 창조하는 상상력에 의존하고 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페데리코 마요르가 언젠가 표현했듯이 “명확한 미래관을 지닐 수 있으려면 우리는 과거를 상상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사회인류학자·프랑스)

“나는 한 사회 구성원들의 사고 속에서 신화가 하는 역할을 살펴보고자 했다. 나는 신화의 사회적 기능에 관해 계속 자문하기에 앞서 그것의 내적 논리를 분별하고자 노력했다.



21세기를 여는 상상력의 창조자들

해부학과 생리학 사이의 관계에서처럼, 그리고 유기체가 구성되는 방식과 그것이 기능하는 방식 사이의 관계에서처럼, 모든 학문에는 생물학적 정의가 가능한 문제가 있게 마련이다. 물론 신화는 사회 안에서 기능하며 자기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묻기 전에, 그것이 만들어지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의 해부학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퀴비에가 앞에 있지 않았다라면 다윈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신화학》은 퀴비에의 무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는 신화를 해부하고자 애쓰고 있다.

진보의 개념은 어떤 문화가 주어진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라면 만들어낼 수 없는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나의 민족학적 사고방식의 기반 가운데 하나인 문화상대주의에 따르면, 어떤 문화가 또하나의 문화보다 낫다고 주장할 절대적 기준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문화가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문화가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것은 전자가 후자보다 우월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은 차등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인 사회들 사이의 협력을 어떤 역사적 상황이 이끌기 때문이다. 그런 뒤야 이 문화들은 상호 모방 내지 대립을 통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들은 서로를 풍요롭게 만들고 서로를 자극한다. 또다른 시간과 또다른 공간 속에서는 문화들이 고립되고 정적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움베르토 에코(기호언어학자·이탈리아)

“나는 나 자신을 기호학자라기보다는 철학자라고 생각한다. 일반기호학은 철학의 가장 중요한 갈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기호

학자들은 오늘날 그 어느때보다 더 필요할지 모른다. 우리는 양극화 시대의 끝을 살고 있다. 지난날에는 두 이데올로기 진영의 기호학자들이 서로의 체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데 열중했던 듯싶으므로 사정이 보다 단순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도 많은 문화, 너무도 많은 언어와 담론의 유형이 때로는 평화적으로 때로는 강제적으로 주목을 요구하고는 까닭에, 나에게서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체계 또는 세계관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일이 그 어느때보다 더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기호학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 바로 이곳이다. 나는 기호학이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거나 아니면 ‘철학자들의 공화국’이 수립될 수 있다고 경솔히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기호학은 교육과 국민윤리에서 한몫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상대성·다양성·관용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다.”

노엘 르누아르(프랑스 헌법위원회위원·프랑스)

“우리가 살고 있는 기술과학 시대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치료법상의 진보, 고통의 구제, 개인적·집단적 복지의 향상, 그리고 대중이 향유할 수 있거나 개인적 자유의 범주를 증가시킬 수 있는 문화 형태의 창조 등의 결과로서 과학이 제시하는 바의 희망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긍정적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이원성의 증가 때문에 부정적이다. 불평등은 잘 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 사이에만, 연구소와 산업체를 갖춘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민족·문화 공동체 안에도 존재한다. 범세계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들 스스로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주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불평등에 대한 투쟁에 더하여, 문제되는 것은 권리와 자유의 보호이다. 무지 및 잘못된 지식은 편견의 원천이다. 유전학에서는 사실을 잘못 읽으면, 이 또한 자유를 잠먹을 수 있는 행동을 이끌어올 수 있다.”

여성신문사/A4/408면/12,000원